

신적 수동태 구절 소고

장동수*

1. 서론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또는 passivum divinum) 혹은 신학적 수동태(theological passive)란 하나님을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거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자(agent)가 생략된 채 사용되는 수동태를 말한다.¹⁾ 예레미야스는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ipsissima verba Jesu)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 신적 수동태의 사용을 거론하면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언사에서 무려 100번 정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 신약시대 이전에 이미 제 3 계명(출 20:7; 신 5:11)을 확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대 사회에서 신명사문자(神名四文字, tetragrammaton, יהוה의 네 자음문자를 가리키는 것)를 발음하는 것을 피하였고,³⁾ 신약시대의 상황도 이와 흡사하여 하나님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습관을 예수도 많은 경우 따르게 되었을 것으로 예레미야스는 추정한다.⁴⁾ 그는 또한 이 신적 수동태가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묵시문학에서 많이 발전되기도 하여서, 이 신적 수동태는 비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활동을 감추어서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음을 주장한다.⁵⁾ 이러한 예레미야스의 견해에 대하여 반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신약학).

1)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Rom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963), 76.

2)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The Proclamation of Jesus*(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1), 9-14.

3)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 즉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는 방식에 관하여 Gustaf Dalman,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Edinburgh: T. & T. Clark, 1909), 179-234, 특히 182-183, 233-234를 보라.

4)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9.

만,⁶⁾ 필자는 신약에서 신적 수동태를 많이 접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여긴다.

본고의 목적은 신약성서에서 신적 수동태가 포함된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살펴보고 수동태가 비교적 잘 발달되지 않은 한글로 이러한 구절들을 번역함에 있어서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한글에서는 수동형이 없고 피동형이나 사동형이 이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⁷⁾ 필자는 신약에 나오는 신적 수동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구절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서, 바울 서신, 일반서신에 나오는 신적 수동태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잘 알려진 구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본문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스틀레-알란트 27판(=NA27) 및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4판(이하 UBS4)의 본문을 따랐고, 번역에 대한 비교는 「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하 개역한글판) 혹은 「성경전서개역개정판」(이하 「개역개정판」)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우리말 번역성경과 영역성경 중에서 KJV(=King James Version),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95),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NEB(=The New English Bible), JB(=The Jerusalem Bible),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TNT(=The Translator's New Testament) 등과도 비교하였다.

2. 공관복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레미야스는 공관복음서에서만 100군데 가까운 신적

5) Ibid., 13. 또한 하나님의 활동을 암시적으로 혹은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달만은 무려 열 네 가지를 예로 들면서 “수동태”를 그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Dalman, 224-226.

6) Stanley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Sheffield: JSOT Press, 1994), 65-66. 여기서 포터는 예레미야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완곡표현 중의 하나로 말한 마 16:19을 들어서 예레미야스가 신적 수동태로 주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예레미야스를 공격하고 있다.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9를 보라.

7) 이익섭과 채완은 한글의 피동문을 “피동(passive)은 피동태라고도 불리듯이 능동(active), 또는 능동태와 함께 태(voice)의 하나로서 늘 능동을 기준으로 그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영어의 수동태와 흡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동사(타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나 조동사(‘-어지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서울: 학연사, 1999), 293-314.

수동태 구절을 열거하고 있고, 달만도 30군데 가까이 언급하고 있다.⁸⁾ 필자는 공관복음에서 신적 수동태 구절로 여겨지는 문단이나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리하여 보고 각각의 경우 한글 번역상의 제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2.1. 팔복 중에서(제 2, 4, 5, 7 복): 마 5:4, 6(눅 6:21상), 7, 9

본고에서는 산상수훈 혹은 평원수훈의 배경, 형식, 해석의 역사/방법,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팔복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⁹⁾ 산상수훈/평원수훈에 포함된 이른 바 팔복에 나오는 신적 수동태로 바로 들어가서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산상수훈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의 틀로서 마태복음(혹은 공관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적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마태복음의 경우 하늘 나라)의 윤리로 보는 것과,¹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 종말론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전제로 수용한다.¹¹⁾

산상수훈의 초두인 마태복음 5장에 수록된 팔복 문단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μακάριοι οἱ πειθοῦντες, ὅτι αὐτοὶ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마 5:4)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필자의 사역)¹²⁾

8) Dalman, 224.

9) 산상수훈/평원수훈의 훌륭한 개론과 전문적인 해석을 위하여 Craig L. Blomberg, *Jesus and the Gospels*(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244-56; D. A. Carson, *The Sermon on the Mount*(Grand Rapids: Baker, 1978); Georg Strecker, *The Sermon on the Mount: An Exegetical Commenta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Hans Dieter Betz, *The Sermon on the Mount, Hermeneia*(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Robert A. Guelich,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Sermon on the Mount*(Dallas: Word Books, 1982)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0)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학적 틀과 해석의 역사에 관하여는 Betz, 5-44; Blomberg, 245-7;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14-22; Strecker, 23-25 등을 보라.

11) 하나님 나라에 대한 20세기 해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Wendell Willis, ed., *The Kingdom of God in 20th-Century Interpretation*(Peabody: Hendrickson, 1987)을 보라.

12)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성경구절은 「개역한글판」의 인용이나, 경우에 따

상반절에서는 “~한 자들”에 대한 복이 선언되고, 접속사 ὅτι(왜냐하면)로 시작되는 하반절에서는 대부분 미래형 동사가 사용되면서(5:3, 10은 현재형)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인 종말론적 구원이 선언되고 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은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적 주제라는 주장이 아니더라도 팔복의 첫 번째를 말해주는 바로 앞 절(마 5:3)과 마지막 복을 언급하는 5:10절의 하반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마태복음 특유의 어구인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Kingdom of Heavens, 천국/하늘 나라)만 보더라도 명백해진다. 이 종말론적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팔복 중에서 네 구절 즉, 마 5:4(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6(χορτασθήσονται), 7(ἐλεηθήσονται), 9(κληθήσονται)의 하반절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미래 수동태 직설법 3 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 제 4 복의 평원수훈 병행구절(눅 6:21상)에도 마태복음과 동일한 동사의 동일한 형태인 미래 수동태 직설법(χορτασθήσεσθε)이 사용되었고 인칭만 다르다(2 인칭). 마태복음에는 αὐτοί라는 대명사가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는 대명사 없이 2 인칭 복수 동사형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의 수동태를 그 행동하는 실질적인 주어(주체)로서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신적 수동태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¹³⁾ 마 5:4의 경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반절의 종말론적 미래수동태(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인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나게 하고(사 49:13; 51:12; 61:1-2; 66:13; 렘 31:13; 눅 2:25),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통치의 한 부분으로서 세상 끝에 계시되어 현재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의 행하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¹⁴⁾ 하나님은 이미 애통하는 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 61:1-2(눅 4:18-19에서 주님에 의하여 인용됨)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라는 필자가 논지를 펴기 위하여 다시 번역하였다.

13) Strecker, 35, 38-9, 41; Betz, 124, 134;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BC(Dallas: Word Books, 1993), 92-93;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New York: Doubleday, 1970), 633-4.

14) 팔복에서는 대부분 미래형 동사들이 사용되면서 그 미래성이 두드러지나, 마태복음에 표현된 천국/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재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마 12:28과 이미 언급한 마 5:3, 10에 사용된 현재형 동사들을 참고); Strecker, 35;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81; Betz, 124.

40:1)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계 7:17; 21:4)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그 병행구절(6:21상)이 있는 제 4 복, 마 5:6 하반절의 동사(χορτασθήσονται, 저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다.”¹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에 사용된 마태복음의 의(δικαιοσύνη)의 개념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마 5:6; 6:33) 구원론적인 용어이며, 둘째로 다른 사람과(마 5:20, 21-48) 하나님과의 관계(마 6:1-18)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윤리적인 용어이며, 셋째로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메시아 예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종말론적 혹은 기독교론적인 용어이다.¹⁶⁾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갈망이 성취되고 그의 영혼이 만족될 때까지 그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¹⁷⁾

미래 수동형 동사가 사용된 제 5 복(마 5:7)그리고 제 7 복(마 5:9)의 상황도 이미 언급한 내용과 흡사하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홀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기에 언급된 제 2, 4, 5, 7 복의 어구 하반절에는 행위자가 표시되지 않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각각 “위로하고, 배부르게 하고, 공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이 구절들에 대한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에는 대체적으로 미래 수동태가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마 5:4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7(“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9(“저희가 . . .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리고 눅 6:21(“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은 수동태가 잘 반영된 번역이다. 하지만 마 5:6은 능동태(“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로 번역됨으로서 수동태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행구절인 눅 6:21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 5:6은 수동태를 살려서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임이요” 혹은 눅 6:21과 일치하도록 “저

15) Strecker, 38.

16)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86-7.

17) William Barclay, *The Beatitudes & The Lord's Prayer for Everyman*(New York: Harper & Row, 1963), 59.

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로 번역함으로서 다른 수동태 동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신적 수동태를 살려내는 번역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2. 주기도문 중에서: 마 6:9-10(눅 11:2)

위에서 팔복에 관하여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 문법적인 구조, 신학 등에 대한 장황한 논의는 생략하고,¹⁸⁾ 주기도문에 나오는 신적 수동태에 대한 논의로 바로 들어가기로 한다. 마태복음(마 6:9-15)과 누가복음(눅 11:2-4)에 실려있는 주기도문의 구조는 서언과 청원(마태복음은 일곱, 누가복음은 다섯의 청원들이 있다)으로 이루어졌고, 이 청원들은 소위 “당신 청원”(the *thou* petitions)과 “우리 청원”(the *we* petitions)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그런데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당신 청원”으로 불리는 처음 셋(마태복음) 혹은 둘(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셋째가 빠져 있다)의 청원에서이며,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마 6:9 Οὕτως οὖν προσεύχεσθε ὑμεῖς·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10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
 마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9절(ἁγιασθήτω)과 10절(γενηθήτω)에 나오는 동사 둘은 모두 부정과거 수동태(10절의 ἐλθέτω는 deponent 형태이다) 명령법이다. 주기도문 중에서 “당신 청원들”에 대한 번역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첫째로는 수동태가 포함되었다는 점(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18) 이러한 논의와 주기도문에 대한 방대한 참고문헌을 보기 위하여 Betz, 370-86을 참조바람. 또한 Strecker, 105-28; 최갑중, 「예수님이 주신 기도」(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등도 참조바람.

사람인가?의 문제와 또한 문법적인 주어를 사용할 것인가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둘째로는 명령법이 사용되었다는 점(명령으로 불 것인가? 기도로 불 것인가?)이며, 셋째로는 인칭대명사의 속격 σου에 대한 번역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주기도문의 번역에 관한 논의는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¹⁹⁾ 또한 언어학적인 성격상 원문의 의미를 내용과 형식 모두를 온전히 담아내는 번역은 거의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청원들의 번역에서는 수동태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영되어야 하며, 명령법은 기도문으로 번역될 수 있고, 부정과거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행동의 시작을 나타내는 점적인 동작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인칭대명사 σου는 우리말로 하면 “너의” 혹은 “당신의”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말은 다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말은 경어나 친근한 말로 사용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청원에 나오는 동사 ἀγιασθήτω는 ἀγιάζω(거룩하게 하다)의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이다. 이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이기 때문에 해석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압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ἀγιασθήτω를 신적 수동태로 보아서 하나님을 숨겨진 주어로 여기고, 첫 번째 청원(ἀ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에 종말론적인 적용을 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끝내고 그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²¹⁾ 둘째는 단순한 기도로 보아 숨겨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로 여기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해주소서”로 번역하는 것이다.²²⁾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강조하여 번역하는 것이

19) 그 전형적인 예로 『표준새번역』의 주기도문의 마 6:9의 번역에 관한 고영민-민영진 박사의 지상논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영민, “『표준새번역』은 기독교 진리들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것인가?” 『월간 목회』, 201호(1993. 5): 83-5; “『표준새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기 보다는 임의적으로 왜곡되고 수정된 현대판 주석서다,” 『월간 목회』, 201호(1993. 7): 73-75; 민영진, “논증자료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인용해야 한다,” 『월간 목회』, 202호(1993. 6): 88-98; “『표준새번역』은 원문을 우리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월간 목회』, 204호(1993. 8): 87-101; 또한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94), 463-72를 보라.

20) 장동수, 『신약성성 헬라어 문법: 어형론과 문장론』(서울: 요단출판사, 1999), 208;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74;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New York: Doubleday, 1985), 904.

21) Betz, 124.

고, 후자의 경우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여 번역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청원의 대상이 이미 “하늘의 우리 아버지”(“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로 명시되어 있고, 세 청원 모두의 문법적인 주어, “이름, 나라, 뜻”(“τὸ ὄνομα, ἡ βασιλεία, τὸ θέλημα”)에 2인칭대명사 단수 속격(σου)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각 청원에 숨어 있는 행위 주체(agent)를 하늘의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유대적인 맥락에서 주기도문의 유사성을 찾는다면, 아람어로 된 종말론적 기도인 카디쉬나 “열여덟 축복기도”(ܩܕܝܫܐ ܕܡܝܫܝܩܐ) 등에서는 하나님을 그 주어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그 숨어 있는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 라는 주장의 뒷받침이 된다.²³⁾ 여기에서 ἁγιασθήτω뿐만 아니라 γεινηθήτω를 신적 수동태로 받아들인다면 당시청원들의 행위주체는 하나님임이 분명해진다. 신적 수동태를 살려 행위주체를 암시하면서 번역할 경우 여기서는 문법상 주어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는 사역형 동사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개역한글판」 성경의 당신 청원 부분에서는 문법적인 주어가 주어로 사용되면서도 2인칭 대명사 속격(σου)은 세 번 모두 생략되었고 또한 경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각 기도의 행위주체가 모호하다. 그리고 첫 청원에만 수동형이 반영되었고 셋째 청원에는 그렇지 못하고, 첫 청원에서도 행위주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신적 수동태를 잘 나타내 주지 못한다. 그러나 「표준새번역」(“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으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에서는 2인칭 대명사 속격(σου)의 번역은 생략되었지만 수동의 의미로(혹은 사동의 의미로)번역되고 경어가 사용됨으로서, 행위주체가 하나님임이 암시되어서 신적 수동태가 살려지고 있다.²⁴⁾ 그러나 첫 청원에서는 문법상의 주어는 반영되지 못하고 사역형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주기도문의 당신 청원에 대한 필자의 번역 제안은 다음과 같다.

22) Ibid.

23) Strecker, 108-11; Joachim Jeremias, *The Lord's Prayer*(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4-5; *New Testament Theology*, 198.

24) 「표준새번역」의 <주 기도문>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박창해, “<주 기도문>의 통어 구조,” 「성서한국」, 38권 1호(1992. 6): 10-24; 김창락, “<주 기도문>의 번역과 주석상의 문제점,” 「성서한국」, 38권 1호(1992. 6): 25-31 등을 보라.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때 주기도문의 당신 청원에 나타나 있는 문법적인 측면도 잘 반영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가 강조될 수도 있고 사람의 책임성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학적인 측면도 손상되지 않게 될 것이다.

2.3. 예수의 첫 선포 중에서: 막 1:15 -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

막 1:15, “καὶ λέγων ὅτι Πεπλήρωται ὁ καιρὸς καὶ ἤγγικε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μετανοεῖτε καὶ πιστεῦετε ἐν τῷ εὐαγγελίῳ.”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에서 사용된 πεπλήρωται는 동사 πληρώω의 현재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형태이며 등위접속사 καί로 연결된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 현재완료형 동사 ἤγγικεν과 병행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동사 πεπλήρωται가 완료형인 점에 관하여 굴리흐는 단순한 완성의 개념보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강하며, 또한 수동태로 되어 있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성취의 행위자임이 암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²⁵⁾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시간(ὁ καιρὸς), 즉 종말론적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어떤 불특정한 시간을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²⁶⁾ 또한 건드리는 본 절의 주석에서 “여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수의 언급에서는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를 선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시간의 완성을 가져오셨다”고 말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주장들과 문법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본다면 「개역한글판」 성경에 “때가 찼고”라고 번역된 이 문장은 신적 수동태임이 거의 확실하다. 영

25) Robert Guelich, *Mark 1-8:26*, WBC(Dallas: Word Books, 1989), 43.

26) C. E. B. Cranfield,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CGTC(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63; William Lane, *The Gospel of Mark*, NICNT(Grand Rapids: Eerdmans, 1974), 64.

27) Robert H. Gundry, *Mark: A Commentary on His Apology for the Cross*(Grand Rapids: Eerdmans, 1993), 65.

역성경 KJV, NASB, NRSV 등에도 이 부분이 한결같이 “The time is fulfilled,”로 번역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글성경에서도 이 문장을 신적 수동태가 반영된 구절로 번역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4. “죄를 사하는 분이 계시다” - 막 2:5

막 2:5(“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καὶ ἰδὼν ὁ Ἰησοῦς τὴν πίστιν αὐτῶν λέγει τῷ παραλυτικῷ, Τέκνον, ἀφίενταί σου αἱ ἁμαρτίαι.”)에서 「개역한글판」 성경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로 번역된 부분은 “ἀφίενταί σου αἱ ἁμαρτίαι.”인데, 여기의 동사 ἀφίενται는 ἀφίημι의 부정과거적/수행적 현재 수동태(aoristic/performative present passive)직설법 3인칭 복수이므로 문자적인 번역은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다”이다.²⁸⁾ 눅 5:20에는 현재완료 수동태(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ἀφέωνταί σοι αἱ ἁμαρτίαι σου)가 사용되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막 2:5의 예수의 죄 용서의 선포는 죄 때문에 발생한 병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통하여 치유될 때에만 진정으로 온전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²⁹⁾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에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막 2:5이나 눅 5:20의 동일한 형태의 동사(ἀφίημι)가 경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즉, 거의 병행구절이라고 보여지는 마 12:31-32; 막 3:28-29; 눅 12:10 등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면, 눅 12:10(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καὶ πᾶς ὃς ἐρεῖ λόγον εἰς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ἀφεθήσεται** αὐτῷ· τῷ δὲ εἰς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 βλασφημήσονται οὐκ **ἀφεθήσεται**.)에서 동사 ἀφεθήσεται가 일관성 있게 경어(“사하심”)와 수동태의 의미(“받지 못하리라”)로 번역되었다. 이 모든 곳(막 2:5; 3:28-29; 마 12:31-32; 눅 12:10)에서의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으며 미래시제(ἀφεθήσεται)는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³⁰⁾ 이

28)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864-70; 장동수, 268.

29) Lane, *Mark*, 94.

30) Guelich, *Mark 1-8:26*, 85-6; 178; 막 3:28-29에 관하여 건드리도 “이 수동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는 의미를 가진 신적 수동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Gundry, 176), 눅 5:20에 관하여 휘츠마이어도 눅 5:20의 동사를 신학적 수동태

모든 구절에서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의 의미가 스며 있는 번역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마 12:31-32와 막 3:28-29에서는 경어(“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로 번역됨으로서 하나님이 숨어 있는 주어로 암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절들에서 신적 수동태를 반영한다면, 통일성(예를 들면 경어의 문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2.5. “주고, 여는 분이 계시다”: 마 7:7-8(눅 11:9; 6:38)

「개역한글판」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로 번역된 마 7:7-8의 원문은 “Αἰτεῖτε καὶ δοθήσεται ὑμῖν, ζητεῖτε καὶ εὕρησεται, κρούετε καὶ ἀνοιγήσεται ὑμῖν· πᾶς γὰρ ὁ αἰτῶν λαμβάνει καὶ ὁ ζητῶν εὕρισκει καὶ τῷ κρούοντι ἀνοιγήσεται.”로서 7절과 8절은 각각 세 문장으로 구성된 쌍둥이 구절이며 형식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7절에서는 각 문장의 전반부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나 8절의 동일한 부분은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그 실제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즉,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원문에는 7절의 첫 문장(δοθήσεται), 마지막 문장(ἀνοιγήσεται), 그리고 8절의 마지막 문장(ἀνοιγήσεται)의 후반부가 모두 미래 수동태 직설법 동사로 되어 있는데,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7절과 8절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수동태를 살려서 “열릴 것이니”와 “열릴 것이니라”로 번역되었으나 7절의 첫 문장에서는 δοθήσεται(δίδωμι[주다]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것이 주어질 것이요”)가 경어 “주실 것이요”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마 7:7에서 명령법에 이어서 접속사 καί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 미래 수동태 동사들은 하나님이 그 청원을 성취해 주실 것의 확실성을 묘사하고 있다(비교. 마 7:11). 여기에 사용된 미래 수동태 동사들도 신적 수동태로 보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³¹⁾ 그런 의미에서 δοθήσεται가 경어 “주실 것이요”로 번역된 「개역한글판」 성경은 실제적인 주어인 하나님이 숨겨

로 보고 있다: Joseph A. Fitzmt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New York: Doubleday, 1970), 583.

31)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BC(Dallas: Word Books, 1993), 174;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357.

진 신적 수동태가 고려된 번역인 것으로 보이나 어형론적으로는 수동태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또한 마 7:7-8과 verbatim으로 병행구절인 눅 11:9-10에 서의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거의 동일하나, 오히려 동사 λαμβάνει는 신적 수동태 동사 δοθήσεται에 대한 대구로서 마태복음에는 “얻을 것이요”로 누가복음은 “받을 것이요”로 각각 번역되어 수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δίδωμι동사는 여러 군데에서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즉, 막 4:11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Ὑμῖν τὸ μυστήριον δέδοται τῆς βασιλείας τοῦ θεοῦ);³²⁾ 막 8:12(“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εἰ δοθήσεται τῇ γενεᾷ ταύτῃ σημεῖον.);³³⁾ 막 13:11(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 이시니라; καὶ ὅταν ἄγωσιν ὑμᾶς παραδιδόντες, μὴ προμεριμνᾶτε τί λαλήσητε, ἀλλ’ ὃ ἐὰν δοθῇ ὑμῖν ἐν ἐκείνῃ τῇ ὥρᾳ τοῦτο λαλεῖτε· οὐ γὰρ ἔστε ὑμεῖς οἱ λαλοῦντες ἀλλὰ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³⁴⁾ 등이다.

또한 이 δίδωμι동사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유사어 혹은 반의어로 볼 수 있는 동사들도 신적 수동태로 사용된 예들은 많이 있다. 즉, 마 21:43(“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διὰ τοῦτο λέγω ὑμῖν ὅτι ἀρθήσεται ἀφ’ ὑμ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καὶ δοθήσεται ἔθνει ποιοῦντι τοὺς καρποὺς αὐτῆς.”); 눅 8:18(“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βλέπετε οὖν πῶς ἀκούετε· ὃς ἂν γὰρ ἔχη,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καὶ ὃς ἂν μὴ ἔχη, καὶ ὃ δοκεῖ ἔχειν ἀρθήσεται ἀπ’ αὐτοῦ.”); 막 4: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ὃς γὰρ ἔχει, δοθήσεται

32) Guelich, *Mark 1-8:26*, 205; Joachim Jeremias, *The Parables of Jesus*(New York: Scribner, 1972), 15.

33) 이 문장은 예수의 엄중한 예언적 도입부(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로 시작되며, 귀결절이 생략된 형태의 히브리식 관용구에 흔히 나타나는 조건절이다. 원문에는 동사 δίδωμι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δοθήσεται)이지만 「개역한글판」 성경에는 경어 “주시지(아니하)리라”로 번역됨으로서 신적 수동태의 암시가 있다.

34) Gundry, 770; Lane, *Mark*, 463.

αὐτῶ· καὶ ὅς οὐκ ἔχει, καὶ ὃ ἔχει ἀρθήσεται ἀπ’ αὐτοῦ.”); 마 6:33(“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ζητεῖτε δὲ πρῶτο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αὐτοῦ, καὶ ταῦτα πάντα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³⁵⁾ 등이다.

2.6. “머리털을 세고 있는 분이 계시다”: 마 10:30; 눅 12:7

마 10:30 (“ὑμῶν δὲ καὶ αἱ τρίχες τῆς κεφαλῆς πᾶσαι ἡριθμημέναι εἰσίν.;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과 병행구절인 눅 12:7 (“ἀλλὰ καὶ αἱ τρίχες τῆς κεφαλῆς ὑμῶν πᾶσαι ἡριθμῶνται.;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에 동시에 나오는 어구, ἡριθμημέναι εἰσίν(마태복음에는 동사 ἀριθμέω의 현재완료 수동태/중간태 분사와 εἰμί동사의 합성형으로 현재완료의 대체형인 완곡법[periphrastic]의 형으로 나오고 있다³⁶⁾)과 ἡριθμῶνται(누가복음에서는 부정과거)에서 우리는 신적 수동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마 10:28-31/눅 12:4-7에서는 참새 한 마리의 죽음이나 머리털 수처럼 인생의 미미한 부분까지도 눅 12:6/마 10:29에 각각 나오는 “하나님 앞에(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있고 또한 “너희 아버지의(τοῦ πατρὸς ὑμῶν)” 끝이 없는 관심 하에 있다는 것이 표현되고 있다. 즉,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 하에 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마 10:30(ἡριθμημέναι εἰσίν)과 눅 12:7(ἡριθμῶνται)에 사용된 동사 ἀριθμέω의 수동형들은 그 숨겨진 행위자가 하나님인 신적 수동태들이다. 이 구절들에 대한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경어와 수동의 의미로 되어 있어서 신적 수동태가 암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어 없이 단순히 수동의 의미로 번역 되도 무방하리라고 여겨진다.

2.7.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 마 7:1-2(눅 6:37)

35) 마 6:33의 경우 「개역한글판」의 번역의 경어(“더하시리라”)는 신적 수동태가 암시되어 있는 번역이다. 여기서도 “종말론적인 요구와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매일의 필요는 적게 보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맡겨질 수 있는 것이다.”(Strecker, 140). “이 동사(προστεθήσεται)는 하나님을 암시된 주어로 보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으며 전체 문단(6:25, 28-31)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동사이다”(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348).

36) 장동수, 149.

37) Hagner, 286;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960.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마 7:1-2(“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 Μὴ κρίνετε, ἵνα μὴ κριθῆτε· 2 ἐν ᾧ γὰρ κρίματι κρίνετε κριθήσεσθε, καὶ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은 5절까지 이어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시작부분이며 1-2절은 마 6:14-15; 18:32-35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1절의 κρίνω동사의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이나 2절의 κρίνω동사와 μετρέω동사의 직설법 미래 수동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암시된 신적 수동태이다.³⁸⁾

마 7:1-2과 유사한 병행구절들에 사용된 수동태형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적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다: 막 4:24(“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눅 6:37(“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Καὶ μὴ κρίνετε, καὶ οὐ μὴ κριθῆτε· καὶ μὴ καταδικάζετε, καὶ οὐ μὴ καταδικασθῆτε. ἀπολύετε, καὶ ἀπολυθήσεσθε.”) 등이 그러하다.

이외에도 공관복음에 언급된 종말론적인 현상들에 나타난 신적 수동태의 예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막 9:45-47(“지옥에 던지우는” - βληθήναι); 마 24:40(“테려감,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 παραλαμβάνεται, ἀφίεται); 막 13:13(“구원을 얻으리라” - σωθήσεται); 마 23:12; 눅 14:11(“낮아지고, 높아지리라” - ταπεινωθήσεται, ὑψωθήσεται) 등이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한 경우들 이외에 신약성서에 여러 차례 나오는 γέγραπται(기록되었으되)나 ἐρρέθη(말한 바) 등도 신적 수동태로 고려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γέγραπται의 논리적 주어는 성서의 기자들이고, ἐρρέθη의 주어는 하나님 혹은 율법 혹은 옛 사람 등일 수 있는 모호성 때문에 신적 수동태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³⁹⁾

38) Hagner, 169;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350-1; Strecker, 143-5; Bstz, 489-91.

39)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11.

3. 제 4 복음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신적 수동태를 다룸에 있어서 필자는 특별히 요 19:30의 동사 τετέλεσται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소위 가상 칠언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의 원문은 “ὅτε οὖν ἔλαβεν τὸ ὄζος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Τετέλεσται, καὶ κλίνας τὴν κεφαλὴν παρέδωκεν τὸ πνεῦμα.”인데,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동사인 “τετέλεσται”는 τελέω(“완성하다, 성취하다”⁴⁰⁾)의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이며 문자적인 번역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혹은 성취/완성되었다)”이다. 바로 앞(28절),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Μετὰ τοῦτο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δη πάντα τετέλεσται, ἵνα τελειωθῇ ἡ γραφή, λέγει, Διψῶ.)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된 이 동사는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이룬 줄”(요 19:28) 혹은 “다 이루었다”(요 19:30)로 번역됨으로서 동일하게 능동형으로 번역되었고, 주님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요 19:30의 동사의 의미하는 바는 요 17:4의 예수의 기도와 요 13:1의 실현으로 볼 수 있으나,⁴¹⁾ 그것을 포함하여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왔고,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였다. 이 위대한 구속사역이 이제 최고점에 달하였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다(It is finished)”⁴²⁾ 그러므로 요 19:30의 τετέλεσται를 막 15:34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병행구로 보

40) 이 단어는 “의무를 완성하다”는 뜻과 “종교적인 행위를 완수하다”는 뜻이 있는데, 요 19:20에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George R. Beasley-Murray, *John*. WBC(Dallas: Word Books, Publishers, 1987), 352; Raymon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xiii-xxi)*, AB(New York: Doubleday, 1970), 907-8.

41) Ernst Haenchen, *John 2*, Hermeneia(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94; Rudolf Bultmann, *The Gospel of Joh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673-5.

42)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Grand Rapids: Eerdmans, 1984), 815.

는 이들도 있다.⁴³⁾

물론 이 수동태로 사용된 동사의 행위주체를 예수 자신 혹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제 4 복음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표현되게 하기 위하여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의 자발적인 순종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19:28-30; 12:10:17-18; 12:23-24).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리고 또한 주권자에 의하여 취해진 계획된 결정이었다.”⁴⁴⁾ 그러므로 요 19:30의 τετέλεσται는 “다 이루어졌다” 혹은 “다 성취/완성되었다”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바울 서신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신적인 수동태의 개념을 가지고 바울 서신의 소위 유명한 구절들을 살펴볼 경우 시사하는 바들이 많을뿐더러 해당 구절에 대한 한글 번역의 수정 방향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적 수동태가 포함된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본 것이다.

4.1. 로마서

(1) 롬 1:17과 3:21

로마서의 주제 선언이기도 한 롬 1:17의 원문은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인데, 「개역한글판」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ἀποκαλύπτεται”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로 번역됨으로서 동사

43) Raymond E. Brown, *The Death of the Messiah*, vol. 2(New York: Doubleday, 1994), 1077; Beasley-Murray, 353.

44) Brown, *The Death of the Messiah*, 1078.

ἀποκαλύπτεται가 능동태 혹은 중간태로 간주되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나서”로 번역된 ἀποκαλύπτεται는 동사 ἀποκαλύπτω(계시하다, 나타내다)의 현재 중간태/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형이다. 물론 그리스어에서 동사 현재형의 수동태와 중간태가 동일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ἀποκαλύπτω는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단어이며 하늘의 권위로 신적으로 주어지는(신적 수동태를 암시한다) 나타냄/계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어휘임(마 11:25, 27; 눅 10:21-22; 마 16:17; 고전 2:10; 14:30; 갈 1:12, 16; 2:2; 엡 1:17; 빌 3:15)⁴⁵⁾을 감안한다면 중간태보다는 수동태일 가능성이 더 높다. 바울이 본고의 앞부분(팔복이나 주기도문의 논의에서)에서 나온 대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를 관계(relation)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약적 신실하심(covenant faithfulness)” 혹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보고있는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용된 어휘 ἀποκαλύπτεται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목적의 종말론적으로 새롭고 결정적인 나타냄(an eschatologically new and decisive disclosure)”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롬 1:17의 ἀποκαλύπτεται가 신적 수동태임이 분명하므로, “나타나서”처럼 능동형으로 번역되기보다는 “나타내져서” 혹은 “계시되어서”가 더 적합한 번역일 것으로 여겨진다. 대다수의 영역 성경들(KJV, NASB, NRSV, NEB, TNT 등)에는 모두 수동형(“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이 로마서의 주제구절인 1:17을 다시 확인하며 동일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 롬 3:21(“Νυνὶ δὲ χωρὶς νόμου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πεφανέρωται μαρτυρουμέ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에서

45) James D. G. Dunn, *Romans 1-8*, WBC(Dallas: Word Books, 1988), 43; Albrecht Oepke, “ἀποκαλύπτω.”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3, ed. Gerhard Kittel, trans. G. W. Bromiley(Grand Rapids: Eerdmans, 1971), 563-92, 특히 582-7.

46) Dunn, *Romans 1-8*, 40-3; Joseph A. Fitzmyer, *Romans*, AB(New York: Doubleday,

1993, 257, 344; Douglas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Grand Rapids: Eerdmans, 1996), 69-70.

도 원문에서는 수동형(πεφαιέρωται)으로 되어 있으나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능동형(“나타났으니”)으로 번역되어 있다. 동사 πεφαιέρωται는 φανερώ의 현재완료 중간태/수동태 직설법으로서 1:17에 나온 ἀποκαλύπτω와 서로 교환하여 사용되는 비슷한 말이다. 대다수의 영어번역들(KJV, NAB, NRSV)은 1:17절에서 마찬가지로 수동형(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is manifested/disclosed)으로 번역되었다. 두 구절에 대한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으나 그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롬 16:26(“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φανερωθέντος δὲ νῦν διὰ τε γραφῶν προφητικῶν κατ’ ἐπιταγὴν τοῦ αἰωνίου θεοῦ εἰς ὑπακοὴν πίστεως εἰς πάντα τὰ ἔθνη γνωρισθέντος,”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26절에 25절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음⁴⁷⁾)에서 두 개의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φανερωθέντος와 γνωρισθέντος가 각각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와 “알게 하신 바”로 번역됨으로서 수동태가 반영되었고 경어가 사용됨으로서 신적 수동태가 암시되어 있다.⁴⁸⁾ 그런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롬 16:26과 동일한 동사(φανερώ)가 사용된 3:21에서와 이와 서로 교환하여 사용되는 비슷한 동사(ἀποκαλύπτω)가 사용된 롬 1:17에서는 신적 수동태가 반영되지 않은 번역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라 하겠다.

(2) 로마서 4장의 창 15:6의 인용문과 해석

롬 4:3, 9, 22 등에서 나오는 “창세기 15:6(“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의 인용문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장에 걸쳐서 창 15:6의 인용과 그 해석을 통하여(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 믿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4장에서는 한결같이 수동형으로 인용

47) 롬 16:25-27의 송영에 대한 본문비평상의 문제에 관하여는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476-7; 470-3; Harry Gamble, Jr., *The Textual History of the Letter to the Romans*(Grand Rapids: Eerdmans, 1977), 127-32를 보라.

48) James D. G. Dunn, *Romans 9-16*, WBC(Dallas: Word Books, 1988), 915; Moo, 939-40;

되고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여기신 바 되다,” “여기셨다,” “여기시고” 등으로 번역된 이 동사, ἐλογίσθη는 구약 맞소라 본문(MT)에서는 능동형(הִשָּׁחֵט)으로 되어 있다.⁴⁹⁾ 이는 칠십인역(LXX)에서 수동태로 번역되었고, 그 LXX이 로마서에 인용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세 곳의 본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MT: הִשָּׁחֵט לֹ הִשָּׁחֵט וְ

LXX: καὶ ἐπίστευσεν Ἀβραμ τῷ θεῷ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창 15:6)

NA27: Ἐπίστευσεν δὲ Ἀβραάμ τῷ θεῷ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롬 4:3)

접속사와 아브라함의 이름만 제외한다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LXX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동사(λογίζομαι)를 11번(각각 현재 중간태/수동태, λογίζεται[4, 5, 6절]; 현재 중간태/수동태 부정사, λογίζεσθαι[24절]; 미래 중간태, λογίσθηται[8절];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ἐλογίσθη[3, 9, 10, 22, 23절];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 λογισθημι[11절] 등이다) 이나 사용함으로써 창 15:6에서의 이 어휘에 무게를 두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로마서 4장은 창 15:6의 인용문에 포함된 두 동사-ἐλογίσθη(4-8절)와 ἐπίστευσεν(9-21절)-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ἐλογίσθη(λογίζομαι의[누구의 구좌로 계산하다, 돌리다]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는 회계장부에 관련된 상업적인 용어였는데 이곳에서는 사람에게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바울은 이 동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4-8절)에서 두 가지 예(노동과 품삯, 4-5절; 시편 32:1-2절의 인용, 6-8절)를 활용한다. 시 32:1-2의 인용문의 일부인 롬 4:8절에서는 미래 중간태형(λογίσθηται)의 주어가 주(κύριος)로 명시되어 있고, 롬 4:6절에서는 현재 중간태형의 주어가 하나님(ὁ θεός)으로 명시된 사실은 수동태 형(ἐλογίσθη)의 실질적인 행위자는 하나님임을 추론하게 한다.⁵⁰⁾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 15:6의 MT 본문에서

49) 이 동사 הִשָּׁחֵט는 접속사(“그리고”)가 붙어 있는 동사 וְהִשָּׁחֵט(여기다, 썬하다)의 칼(Qal=능동형), 미완료, 3인칭 남성단수에 3인칭 여성 단수 미형이 첨가된 형태로 “그리고 그(하나님)가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로 해석된다.

는 이 동사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어임이 문맥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로마서에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동사의 숨겨진 행위자가 하나님임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된다. 또한 로마서 4장에서 창 15:6의 LXX역의 직접적인 인용문이 아닌 부분(즉, 롬 4:5[λογίζεσθαι], 11[λογισθῆναι], 24[λογίζεσθαι])에서도 바울은 이 동사의 다른 형태까지도 수동형으로 쓰고 있다.⁵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로마서 4장에서 창 15:6의 인용문 혹은 그 해석 구절에 나오는 수동형 동사 ἐλογίσθη의 숨어 있는 실제적인 행위자는 하나님이며, “이 수동태형은 신학적 수동태(theological passive)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다.”⁵²⁾

하지만 이 수동형 동사를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는 모두 능동형(롬 4:3은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혹은 경어로 번역되었다. 로마서 4장에 인용된 창 15:6은 동일한 형태로 갈 3:6(“의로 정하였다”)과 약 2:23(“의로 여기셨다”)에서도 인용되었는데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여전히 능동형과 경어로 되어 있다. 이는 이 수동태 동사의 숨겨진 행위자를 암시하여 신적 수동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수동태를 살린 번역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3) 롬 4:25

롬 4:25(“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ὃς παρεδόθη διὰ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ἡμῶν καὶ ἠγέρθη διὰ τὴν δικαίωσιν ἡμῶν.”)에서 원문은 관계대명사(선행사는 24절의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로 시작되면서 καί로 연결된 두 문장이 구조적으로나 음성학적으로 정교한 대칭(παρεδόθη-ἠγέρθη, διὰ τὰ παραπτώματα-διὰ τὴν δικαίωσιν, ἡμῶν-ἡμῶν)을 이루고 있는 문장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바울의 작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도 하나, 이사야서 53장과의 연관성과 초대교회에 이미 형성된 어구들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⁵³⁾ 이 구절

50) Dunn, *Romans 1-8*, 205.

51)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12.

52) Fitzmyer, *Romans*, 373.

53) Moo, 288.

의 두 동사(παρεδόθη, ἠγέρθη)는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인데, 전자(원형은 παραδίδομι로서 “넘겨주다, 배신하다”의 뜻)는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가롯 유다와 사람들의 배신인가?(막 9:31; 14:21; 행 3:13) 혹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화목을 위한 수단인가?(행 2:23) 사이의 문제이다.

롬 4:25의 전반절은 이사야 53:12(διὰ τὰς ἁμαρτίας αὐτῶν παρεδόθη, LXX)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막 14:21의 예수의 언급(“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ο μὲν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ὑπάγει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περὶ αὐτοῦ)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암시되어 있다. 이 외에 신약성서의 다른 언급(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ὅς γε τοῦ ἰδίου υἱοῦ οὐκ ἐφείσατο ἀλλὰ ὑπὲρ ἡμῶν πάντων παρέδωκεν αὐτόν; 행 2:23 등)들을 종합한다면 동사 παρεδόθη는 인류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신적 수동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⁴⁾

이와 관련하여 25절 후반절에 나오는 동사 ἠγέρθη도 의심할 여지없이 신적 수동태가 분명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의미하는데, 바로 앞 절(“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τὸν ἐγείραντα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ἐκ νεκρῶν”)에 나오는 동일한 동사의 능동태형(ἐγείραντα, 현재 능동태 분사)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휘츠마이어도 “이 두 동사(παρεδόθη, ἠγέρθη)를 신학적 수동태(theological passive), 즉 신적 수동태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⁵⁵⁾

롬 4:25에 대한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 중에서 동사 παρεδόθη는 “내어줌이 되고”로 번역됨으로서 수동형이 살려졌으나, ἠγέρθη는 “살아나셨느니라”는 능동형으로 번역됨으로서 어형 면에서는 신적 수동태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동사 ἠγέρθη도 “일으킴(혹은 살림)을 받으셨느니라”로 번역된다면, 신적 수동태를 살리고 앞에 나오는 “내어줌이 되고”로 번역된 동사(παρεδόθη)와 일치를 이루어 더 나은 번역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54) Dunn, *Romans 1-8*, 224.

55) Fitzmyer, *Romans*, 389.

4.2. 고린도전서

필자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고전 13:12하반절(“ἄρτι γινώσκω ἐκ μέρους, τότε δὲ ἐπιγνώσομαι καθὼς καὶ ἐπεγνώσθην.”;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은 사랑의 영원성/은사나 지식의 잠정성과 부분성을 진술하는 문단(13:8-13)속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안다”는 동사가 합성동사를 포함하여 세 번 나오는데, 각각 현재 능동형(γινώσκω), 미래 디포넛트형(ἐπιγνώσομαι), 부정과거 수동형(ἐπεγνώσθην)으로 나오고 있고 모두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고전 13:12하)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바 그대로 (내가) 알게 될 것이다”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개역한글판」 성경이나 「표준새번역」 등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ἐπεγνώσθην을 “주께서” 혹은 “하나님께서”라는 원문에 없는 말을 넣어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로 능동형으로 번역되고 있다.

고전 13:12절은 “지금”과 “그 때”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대비하고 있다. 12절의 상반절(βλέπομεν γὰρ ἄρτι δι’ ἐσόπτρου ἐν αἰνίγματι, τότε δὲ πρόσωπον πρὸς πρόσωπον)은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대비함으로서 보는 것의 간접성과 직접성을 대조시키고 있다. 12절의 하반절은 전반절의 대비형식을 이어받아 9절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알려진 것처럼(ἐπεγνώσθην) 온전히 아는 것”을 대비함으로서 지식의 부분성과 온전성을 대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수동태는 선택하는 은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종종 제안되기도 하지만,⁵⁶⁾ 신학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시는 방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직접적이고 온전함을 의미한다.”⁵⁷⁾ 그러므로 고전 13:12하반절의 수동태 동사 ἐπεγνώσθην의 행위자는 하나님/주님임을 짐작할 수 있어 이 동사도 신적 수동태로 받아들

56) Hans Conzelmann, *1 Corinthians*, Hermeneia(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228-9.

57)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Grand Rapids: Eerdmans, 1987), 649;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4), 211.

일 수가 있다.

영어성경들에서는 이 동사 ἐπεγνωσθην의 태를 잘 반영하여 번역하였다. 즉, KJV("now I know in part; but then shall I know even as also I am known."), NASB("now I know in part, but then I will know fully just as I also have been fully known."), NRSV("Now I know only in part; then I will know fully, even as I have been fully known.")외에 JB, NIV 등도 그러하다. 그러나 NEB("My knowledge is partial; then it will be whole, like God's knowledge of me")와 TNT("now my knowledge is incomplete, but then I shall know fully, just as God fully knows me.")의 번역은 우리말 성경과 흡사한 점이 보인다. 우리말 성경들에서도 신적 수동태로 보여지는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능동태로 번역된 것은 이 동사의 암시된 행위자(주어)가 하나님임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나 원문과 문법 등을 잘 살려낸 번역은 아니므로, 신적 수동태를 살린 번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전 13:12 이외에도 신적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은 고전 4:2("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ὥδε λοιπὸν ζητεῖται ἐν τοῖς οἰκονόμοις, ἵνα πιστός τις εὐρεθῆ.")에 사용된 두 종류의 수동태 동사 ζητεῖται와 εὐρεθῆ인데, 전자는 ζητέω의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이고 후자는 εὐρίσκω의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이다. 고린도전서 3장 26절부터 시작하여 4장까지 흐르고 있는 논지를 볼 때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바울(과 동역자들) 혹은 그 사역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⁵⁸⁾ 최소한 동사 εὐρεθῆ만은 신적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다. 즉 고전 4:2의 요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충성스럽다고 발견되는 것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적 수동태를 살려서 고전 4:2를 번역하면 "이제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충성스럽다고 발견되어지는 것이다"가 될 것이다.

5. 일반서신

5.1. 히브리서

이른 바 믿음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가 히 11:1에

58)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60.

서 주어지고 히 11:2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히 11:2(“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ἐν ταύτῃ γὰρ ἐμαρτυρήθησαν οἱ πρεσβύτεροι.”)에 사용된 동사 ἐμαρτυρήθησαν(μαρτυρέω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가 신적 수동태의 가능성이 높다. 이 μαρτυρέω동사는 히브리서에서 총 여덟 번(7:8, 17; 10:15; 11:2, 4[두 번], 5, 39) 사용되었는데, 두 번(10:15; 11:4후)만 능동형이고 나머지는 행위자가 명기되지 않은 수동형이다. 능동태로 사용된 곳에는 “성령”(10:15) 혹은 “하나님”(11:4후)이 주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동사 μαρτυρέω의 능동태와 수동태가 함께 나오면서 대조를 이루어 이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히 11:4(“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Πίστει πλείονα θυσίαν Ἀβελ παρὰ Κάϊν προσήνεγκεν τῷ θεῷ, δι’ ἧς ἐμαρτυρήθη εἶναι δίκαιος, μαρτυροῦντος ἐπὶ τοῖς δώροις αὐτοῦ τοῦ θεοῦ, καὶ δι’ αὐτῆς ἀποθανὼν ἔτι λαλεῖ.”)이다. 또한 수동형으로 사용된 예들은 그 구절이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임이 대부분 암시되어 있다.

이러므로 히 11:2에서 “선진들이 이로서(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저들이 “신적 확증(divine commendation)”을 받은 것이며,⁵⁹⁾ 여기 사용된 수동형 동사 ἐμαρτυρήθησαν의 궁극적인 목적격(행위의 주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⁶⁰⁾ 저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확증을 받은 것”이다.⁶¹⁾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히 11:2의 동사 ἐμαρτυρήθησαν의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임이 분명하며, 히브리서에서 수동형으로 사용된 μαρτυρέω 동사의 나머지 5개의 예(히 7:8, 17; 11:4상, 5, 39)도 유사한 성질의 수동태로 보인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μαρτυρέω동사의 수동태는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히 7:17만 제외하고 모두 “증거를 받다” 혹은 “증거를 얻다”로 번역됨으로서 수

59)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CNT(Grand Rapids: Eerdmans, 1990), 278;

Harold W. Attridge, *Hebrews*, Hermeneia(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314.

60) Paul Ellingworth, *Commentary on Hebrews*, NIGTC(Grand Rapids: Eerdmans, 1993), 567.

61) William Lane, *Hebrews 9-13*, WBC(Dallas: Word Books, 1991), 330.

동태가 잘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수동태(μαρτυρείται, μαρτυρέω의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가 능동태(“증거하기를”)로 번역된 7:17의 경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혹 중간태로 인식되었다면 주어가 명시되었어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다.

5.2. 베드로전서

신적 수동태와 관련하여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들은 벵전 1:3-5; 7과 5:1이다. 우선 벵전1:3-5은 긴 한 문장인데, 3절에 이 긴 문장의 주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ὁ θεός καὶ πατήρ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이 제시되었다. 4-5절에는 수동태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4절의 τετηρημένην(“간직하신 것,” τηρέω의 현재완료 수동태 분사 여성 단수 대격), 5절의 φρουρουμένους(“보호하심을 입었나니,” φρουρέω의 현재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대격), ἀποκαλυφθῆναι(“나타내기로,” ἀποκαλύπτω의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 등이다.

이들 수동태형의 동사들은, 3절에서 이 전체 문장의 주어 격인 “하나님”(ὁ θεός καὶ πατήρ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이 명시되었고, 5절의 “하나님의 능력으로”(ἐν δυνάμει θεοῦ)라는 어구가 암시하듯이, 그 행위 주체가 하나님임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벵전 1:3-5에서는 하나님을 행위의 시발자로 강조하고 있다. . . 베드로가 사용한 다양한 용어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갑작스럽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것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⁶²⁾ 그러므로 이곳에 사용된 세 수동태 동사형들은 신적 수동태로 보여진다.

이들 수동태 동사들에 대한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상황은 “간직하신 것”(τετηρημένην), “보호하심을 입었나니”(φρουρουμένους), “나타내기로”(ἀποκαλυφθῆναι) 등이다. 첫 번째는 능동형과 경어로 되어 있어서 신적 개입은 표현되었으나 어형론적으로 수동형은 아니며, 두 번째는 수동형과 경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서 신적 수동태가 잘 표현되었으며, 세 번째는 능동형만 사용되어서 신적 수동태의 암시가 없는 번역이 되었다. 마지막의 경우와 동일하나 현재 수동태 부정사(ἀποκαλύπτεσθαι)가 사용된 벵전 5:1의 경우도 「개역한글판」 성경은 “나타날”로 번역됨으로서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되어

62) J. Ramsey Michaels, *1 Peter*, WBC(Dallas: Word Books, 1989), 22-3.

있을 아쉬움이 있다. 특히 이 동사(ἀποκαλυφθῆναι나 ἀποκαλύπτεσθαι)는 본고의 로마서 부분에서 논의된 대로 “하나님의 목적의 종말론적으로 새롭고 결정적인 나타냄(an eschatologically new and decisive disclosure)”을 암시할 때 사용된 것임을 감아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벵전 1:7(“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ἵνα τὸ δοκίμιον ὑμῶν τῆς πίστεως πολυτιμότερον χρυσοῦ τοῦ ἀπολλυμένου διὰ πυρὸς δὲ δοκιμαζομένου, εὔρεθῆ εἰς ἔπαινον καὶ δόξαν καὶ τιμὴν ἐν ἀποκαλύψε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은 원래 6절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며, 접속사 ἵνα로와 동사의 가정법(εὔρεθῆ)으로 구성된 목적절 혹은 결과절이며 그 주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τὸ δοκίμιον ὑμῶν τῆς πίστεως)”이다. 7절에서 사용된 수동태는 ἀπολλυμένου, δοκιμαζομένου, εὔρεθῆ 등이나, 앞의 두 개는 그 행위 주체가 금을 제련하는 이나 시간 등 일 가능성이 많고, 신적 수동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εὔρεθῆ(εὐρίσκω[발견하다]의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이다. 이 형태는 고전 4:2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하나, 그곳과는 달리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얻게 하려 함이라”로 수동의 의미를 담고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얻게 되며, 누구에 의하여 발견된다는 말인가? 마이클스는 “이 ἵνα로 시작되는 긴 절은 하나님의 목적(divine purpose), 즉 독자들이 고난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결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다.⁶³⁾ 다시 말하면 수동태 동사의 행위주체는 하나님이며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의 예가 될 수 있다. 「개역한글판」 성경도 “얻게 하려 함이라”로 번역됨으로서 신적 수동태의 암시가 배제된 번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6. 결론과 제안

본고의 목적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소위 신적 수동태 혹은 신학적 수동태가 포함된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 구절들에 대한 한글 성경에서의 번역 제안을 하고자 함에 있었다. 필자는 우선 신적 수동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공관 복음을 위시하여, 제 4 복음서, 바울 서신, 일반서신의 순서로 신적 수동태가

63) Ibid., 30.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또한 각 경우에 한글성서의 번역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로는 공관복음서에서 100군데 정도 신적 수동태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 예레미야스의 지적에 대하여 완전한 동의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공관복음서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서 신적 수동태가 상당수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물론 공관복음서에서 더 많이 신적 수동태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 신적 수동태가 제 3 계명을 준수함과 하나님 경외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으나,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에서처럼 신약에서도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많이 사용된 것(특히 미래 수동태형으로)으로 보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비밀스런 행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이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고에서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꼭 신적 수동태를 암시하는 경어나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수동태를 살려서 번역된 곳이 많이 발견되었다.

둘째, 「개역한글판」 성경의 번역에서 신적 수동태가 경어로 번역되거나, “하나님” 혹은 “주”가 주어로 사용되고 능동태로 번역되어서, 신적 수동태의 실질적 행위자(agent)가 암시되거나 명시된 곳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대표적인 예로 고전 13:12; 마 10:30; 막 3: 28-29; 마 6:33 등). 이러한 번역은 신적 수동태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원문의 문법적인 측면과 함축적인 의미를 함께 담는 번역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원문에는 분명히 (신적) 수동태인데도 불구하고 능동태로 번역된 곳도 더러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롬 1:17; 3:21 등). 이런 경우는 경어나 “하나님” 혹은 “주”와 같은 주어도 사용되지 않아서 신적 수동태를 암시하지도 않고 혼동을 주게 된다.

넷째, 병행구절 혹은 내용이 동일한 문단에서 동일한 어휘가 서로 상이한 번역이 이루어진 곳도 더러 발견되었다(마 5:6-눅 6:21). 이러한 경우는 차후에 통일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현재의 번역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신적 수동태가 잘 반영되어 번역된다면 더 나올 수 있는 곳도 발견되었다(막 1:15; 요 10:30 등). 이러한 경우 신적 수동태가 살려진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한글이 수동태가 잘 발달된 언어도 아니고 그 대체형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형이 될 수도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번역해 내는 작업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주기도문(마 6:9)과 같이 수동태, 명령법, 행위 주체/주어의 복잡함이 함께 묶여 있는 경우는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원문에도 충실하고 각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성서의 번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과업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서 번역 작업에는 이 신적 수동태 구절들도 더 다듬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욱이 수동태가 발달된 영어의 영향이 심해 이미 한글인지 영어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글화된 외래어의 수동형을 활용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직 하다고 여겨진다.

참고한 책과 논문

Critical Editions of the Bible

Aland, Barbara,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and Bruce M. Metzger,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ited Bible Societies, 1993.

_____.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itio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Rahlfs Alfred, ed. *Septuaginta*.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leanstalt/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Elliger, K. and W. Rudolph,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stiftung, 1967-77.

연구서/논문 및 주석

고영민. “「표준새번역」은 기독교 진리들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것인가?” 월간 목회, 201호(1993. 5): 79-89.

_____. “「표준새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기 보다는 임의적으로 왜곡되고 수정된 현대판 주석서다.” 월간 목회, 201호(1993. 7): 72-88.

김창락. “<주 기도문>의 번역과 주석상의 문제점.” 성서한국, 38권 1호(1992. 6): 25-31.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4.

민영진. “논증자료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인용해야 한다.” 월간 목회, 202호(1993. 6): 88-102.

_____. “「표준새번역」은 원문을 우리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월간 목회, 204호(1993. 8): 87-101.

박창해. “<주 기도문>의 통어 구조.” 성서한국, 38권 1호(1992. 6): 10-24.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1999.

장동수.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어형론과 문장론」. 서울: 요단출판사, 1999.

최갑중, 「예수님이 주신 기도」.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Attridge, Harold W. *Hebrew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Barclay, William. *The Beatitudes & The Lord's Prayer for Everyman*. New York: Harper & Row, 1963.

Beasley-Murray, George R. *John*. WBC. Dallas: Word Books, Publishers, 1987.

Betz, Hans Dieter. *The Sermon on the Mount*.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Blass, F.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Blomberg, Craig L. *Jesus and the Gospel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xiii-xxi)*. AB. New York: Doubleday, 1970.

_____. *The Death of the Messiah*. Vol. 2. New York: Doubleday, 1994.

Bruce, F. F.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Bultmann, Rudolf. *The Gospel of Joh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_____. "φανερόω."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9. Edited by Gerhard Kittel. Translated by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71.

Conzelmann, Hans. *1 Corinthi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5.

Cranfield, C. E. B.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CGT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Dalman, Gustaf.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 Edinburgh: T. & T. Clark, 1909.

Dunn, James D. G. *Romans 1-8*. WBC. Dallas: Word Books, 1988.

_____. *Romans 9-16*. WBC. Dallas: Word Books, 1988.

Ellingworth, Paul. *Commentary on Hebrew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3.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 Rapids: Eerdmans, 1987.
- _____.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4.
-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 New York: Doubleday, 1970.
-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New York: Doubleday, 1985.
- _____. *Romans*. AB. New York: Doubleday, 1992.
- Gamble, Harry, Jr. *The Textual History of the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77.
- Guelich, Robert A. *Mark 1-8:26*. WBC. Dallas: Word Books, 1989.
- _____.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Sermon on the Mount*. Dallas: Word Books, 1982.
- Gundry, Robert H. *Mark: A Commentary on His Apology for the Cross*. Grand Rapids: Eerdmans, 1993.
- Hagner, Donald A. *Matthew 1-13*. WBC. Dallas: Word Books, 1993.
- Haenchen, Ernst. *John 2*.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Jeremias, Joachim. *New Testament Theology: The Proclamation of Jesu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1.
- _____. *The Lord's Pray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_____. *The Parables of Jesus*. New York: Scribner, 1972.
- Lane, William. *The Gospel of Mark*.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 _____. *Hebrews 1-8*. WBC. Dallas: Word Books, 1991.
- _____. *Hebrews 9-13*. WBC. Dallas: Word Books, 1991.
-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Michaels, J. Ramsey. *1 Peter*. WBC. Dallas: Word Books, 1989.
- Moo, Douglas,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 Oepke, Albrecht. "ἀποκαλύπτω."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3. Edited by Gerhard Kittel. Translated by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71.

Porter, Stanley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JSOT Press, 1994.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Strecker, Georg. *The Sermon on the Mount: An Exegetical Commenta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Willis, Wendell. ed. *The Kingdom of God in 20th-Century Interpretation*. Peabody: Hendrickson, 1987.

Zerwick, Maximilian. *Biblical Greek*. Rom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963.